

조선근대철학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

로 학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은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여왔습니
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9권 489페이지)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관점과 립장은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
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는 비록 미숙하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고대시기부
터 시작하여 중세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조선근대철학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를 두드러지게 제기한것은 동학사상이다.

동학에서는 한울 즉 우주전체가 지기라고 하는 그 어떤 특수한 기운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동학에 의하면 지기는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지만 물질적인것
인 동시에 정신적인것으로서 자연도 사람도 신도 모두 지기로 만들어졌다는것이다.

동학에서는 세계의 시원을 지기로 인정하였다.

동학을 처음 내놓은 최제우(호는 수운 1824-1864)는 지기를 모든 사물현상에 관계
되는 궁극적시원으로, 가장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하였다.

최제우는 지기의 본질적속성을 3가지 즉 지극히 허하고 신령스럽고 창창하며 그 어
떤 일이나 간섭하고 명령하며 형체, 소리, 빛 등 사람의 육체적인 감각기관에 의하여 감
각되는 형체를 가지지 않는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중세 우리 나라의 유물론자들속에서 세계의 시원적존재로 많이 논의되어온
물질적실체인 기에 신비적이며 의지적인 속성을 부여한것이다.

동학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사물현상, 천지만물이 우주공간에 가득찬 하나의 지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동학에 의하면 지기는 우주사이에 가득히 차고넘치는 허령으로서 어느 일이나 간섭
하지 않음이 없고 어느 일이나 명령 아니하는데가 없어 형용하여 말할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귀로 들을수 없다.

지기는 다양한 사물을 이루는 하나의 시원적요소이며 천지만물의 공통적인 물질적기
초이다. 동학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지기를 천지의 근원,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수운심법강의》에서는 《천지만물은 한가지 지기의 결정이며 내유신령(안으로 신령이
있다는 뜻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곧 한울의 마음이라는 뜻)의 표현이므로 만물의 외형조
직은 각이하나 지기의 간섭과 지기의 명령은 한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기가 천
지만물의 시원이며 자연세계의 모든 사물들, 만물이 하나의 지기로부터 발생하고 다같은
기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이다.

동학은 모든 사물이 하나의 지기, 공통적인 시원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으로써 다
양한 사물현상의 공통성, 세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였을뿐아니라 하나의 지기, 공통적인 시

원으로부터 발생한 천지만물의 차이성,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동학에서는 천지만물의 차이성, 다양성이 그 구성과 형체가 각이한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동학에서는 지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 인정하였다. 최제우는 이것을 무궁, 무극(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없이 무한한것)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최제우는 《무궁한 이을속에 무궁한 내 아니냐.》(《통담유사》, 안심가), 《천지무궁의 수와 도의 무극한 리치》(《동경대전》 론학문)라고 하였다. 여기서 무궁한 이을, 천지무궁은 물질세계의 공간적무한성을 말한것이며 《무궁한 내 아니냐.》, 《무극한 리치》는 시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한것이였다.

동학에서는 세계의 운동변화에 관한 견해도 제기하였다.

동학에서는 세계의 시원을 지기로 보고 천지만물이 지기로부터 발생하며 지기로 이루어졌다고 본것만큼 하나의 근원적인 지기로부터 다양한 사물현상이 어떻게 발생발전하는가를 설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기로부터 동학은 운동변화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최제우는 지기를 활동성이 있는 존재로 보았으며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운동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인정하였다.

동학에서는 운동과 정지, 변과 불변의 호상관계에 관한 사상도 제기하였다. 이것은 사물현상의 동일성과 질적다양성을 설명할 가능성을 주었다. 하나의 기로부터 다양한 사물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운동과 변화에 의하여 설명할수 있다면 다양한 사물들에 고유한 질적특성은 정지와 불변의 계기에 의하여 설명할수 있다.

동학에서는 물질세계의 운동변화의 원인에 관한 견해도 제기하였다.

최제우는 물질세계의 운동변화가 그 어떤 외부적요인의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것을 《무위이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동경대전》에서 《우리 도는 무위이화하다.》라고 하였으며 최시형은 《무위이화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합법칙성의 리를 가르친것이다.》라고 하였다.

동학에서 제기한 무위이화는 두가지 뜻을 담고있다. 하나는 물질세계의 운동변화가 전면적성격을 띠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운동변화의 원인이 사물자체에 있다는것이다. 이 두가지 내용은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어있으면서도 하나는 운동의 성격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의 원인을 나타낸것으로서 다른 의미를 담고있다.

최제우는 물질세계의 운동변화의 근본원인은 지기의 속성에 관계되고 모든 사물은 지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물의 운동은 지기의 특성에 따라 진행되는것으로 리해하였다.

최제우는 모든 천지만물은 발생, 발전, 소멸과정을 거치며 대립물로 전화되는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만물이 처음에 발생하고 성장하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자연의 변함없는 리치라고 하였으며 사물의 운동변화가 일동, 일정, 일성, 일쇠(운동하고 정지하고 성하고 쇠하는것)한다고 인정하였다.

동학에서는 물질세계운동변화의 시간적계기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동학에서는 모든 사물의 운동변화가 일정한 시간적계기성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인정하였다. 최제우는 이것을 운, 시운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동학의 운, 시운은 일정한 시간적계기, 시점에서 사물의 존재상태와 발전전망, 변화추세를 표현하는 범주이다.

세계의 일반적특징에 관한 동학의 지기일원론적견해는 범신론적이였다. 동학에서는 세계의 시원인 지기를 신령스러운것으로 인정하였다. 최제우는 천지만물과 사람이 모두 신이라고 하였다. 그는 천지만물밖의 초자연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천지, 음양, 사람자체가 곧 귀신이며 귀신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제우의 이 견해는 모든 사물에 각각 독립적인 신이 있다고 한 아니미즘(자연물숭배 혹은 정령숭배)이나 일정한 범위의 특정한 사물을 신비화하고 숭배하는 다신관과도 구별되였다.

조선근대철학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는 애국문화계몽사상가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였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견해에서 대부분 관념론적립장에 서있었다. 그들은 그전부터 내려오는 리기호상관계문제에서 리를 세계의 시원으로 인정하고 모든것을 리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리상재는 정신을 인간의 육체적기관의 기능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을 육체와 분리시켜 인간밖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본 견해라고 할수 있다.

리기(호는 해학, 1848-1909)는 유교성리학자들이 리를 창조적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는것을 반대하고 리란 사물현상에 내재하는 필연적이며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현상이 서로 구별되는것은 리가 서로 다르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리와 기의 호상관계문제를 세계의 시원적건지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물은 반드시 기로 이루어지고 리를 가지고있으며 사물을 이룬 기와 리는 절대적으로 분리된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련관되고 의존되어있다고 보면서 리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는 리는 항상 기의 체로 되며 기는 항상 리의 용으로 된다고 하면서 체가 없으면 사물을 형성할수 없고 용이 없어도 사물을 형성할수 없다고 하였다.

리가가 세계관적문제에서 리일원론의 립장에 서있었다면 전병훈(호는 서우, 19세기 말~20세기초)은 리기2원론적립장에 서있었다.

그는 자신이 2원론자라고 하였을뿐아니라 세계철학사를 개괄하면서 데카르트를 비롯하여 2원론자들을 내세우고 중요시하였다.

전병훈은 천지만물의 근원을 혼돈한 일기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혼돈한 기, 원기는 만물을 이루는 시원적물질을 의미하였다. 즉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 원기로 인정하였다.

전병훈의 철학적견해에서 특징적인것은 정, 기, 신의 개념을 제기한것이다. 그는 원기로서 원정, 원신의 개념을 끌어내어 세계의 다양한 사물을 설명하였다. 그의 견해에는 세계를 물질적인것에 의하여 설명하고 인간을 다른 물질적인 존재와 구별하여보려는 합리적요소가 내포되어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철학은 2원론적이였고 중세기적인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근대자연과학에 기초한것이 아니였다.

전병훈은 세계의 운동변화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변증법적견해는 《천지의 운동은 끝났는가 하면 다시 시작되고 태극일기는 고요하였다가는 다시 움직이고 움직이였다가는 다시 고요하여지니 마치 둥근 환과도 같이 시초와 종말이 없는것이다.》(《정신철학통편》 권1 천부경근주 무종일)라고 한데서 명백히 표현되였다. 그는 천체를 비롯하

여 형체를 갖추고있는 모든 사물들은 그것이 다 하나의 기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소멸되며 다시 운동과정에 소생되는 식으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운동변화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담겨져있으나 순환론적인 성격을 내재한것으로 하여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였다.

이와 같이 애국문화계몽사상가들이 주장한 세계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물질과 정신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관념론적성격으로 관통되었으며 그로부터 전개된 사회정치적견해에서 관념론적경향을 극복할수 없었다.

조선근대철학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는 신인철학에서도 논의되였다.

신인철학은 1920년대 리돈화(호는 야퇴, 1884-1950)에 의하여 제기된 조선근대철학조류의 하나이다.

신인철학의 세계에 대한 견해는 동학사상을 전제로 한것만큼 동학과 마찬가지로 지기일원론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세계의 시원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그것을 지기라고 주장하였다.

리돈화는 최제우의 《론학문》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지(이를 지)는 극(다할 극)이라고 하였으니 극이라는것은 만물의 본원, 천지의 본체를 말하는것이다. 극은 무엇으로 된것이냐 하면 수운은 이것을 지기라 하였다.》(《신인철학》 34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지기는 물질과 정신의 근본바탕으로 되는 본체로서 생명(《생명력》, 《생명적활력》, 《생명충동》)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물질과 정신은 지기의 본질적속성으로 되는 지기 생명이 발현된 두 현상이며 다양한 천지만물과 여러가지 외적현상은 물질과 정신 두 현상의 각이한 표현으로 된다.(《신인철학》 38-39페이지)

신인철학은 지기본체의 속성인 생명은 한편으로는 심(외적, 정신)의 방면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의식, 정신현상을 일으키며 다른 편으로는 물질적인 방면에서 여러가지 모양을 가진 다양한 사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기는 현상적으로는 물질적현상과 경제적현상의 두가지로 나타나지만 이 두가지의 본원인 지기자체로 보면 오직 하나의 생명충동일뿐이라고 하였다.(《신인철학》 37-38페이지)

결국 신인철학은 자연계의 다양한 사물현상과 사람을 포함한 우주만물이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지만 물질적인것인 동시에 정신적인것으로서 생명을 속성으로 하고있는 하나의 지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지기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양한 천지만물의 시원인 지기의 성질을 생명, 생명력으로 본 신인철학의 견해에는 물활론적요소가 담겨져있다.

신인철학은 공간적무한성과 시간적영원성을 한울의 속성, 지기의 본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울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이므로 오직 하나(유일)이며 그 어떤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지기일원론은 이와 같이 다양한 천지만물의 총체인 우주세계가 지기로 이루어지고 무한무궁하며 그렇기때문에 자기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우주 즉 한울이 무한무궁한 절대적존재일뿐아니라 자기자체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우주 즉 한울이 끊임없는 운동상태에 있는것은 조화를 자기 본성으로 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조화는 동적이며 창조적상태 등 운동과 관련되어있는 각이한 규정성과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주되는 내용을 이룬것은 동적상태이다. 창조적상태는 운동하는 질서, 성격 등을 특징짓는 내용들이다.

우주 즉 한울이 조화를 자기 본성으로 한다는것은 결국 자기 법칙(질서)에 따라 창조적으로 진행되는 운동 다시말하여 정지상태가 아니라 운동을 자기 본성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한울은 조화 즉 자연계의 특징, 생물계의 특징, 동물계의 특징, 사람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물현상을 이루어놓았다.

한울의 운동에 관한 신인철학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운동의 원인에 관한 문제이다.

신인철학은 한울, 우주가 운동을 자기 본성으로 하고 끊임없이 운동하는것은 그 실체인 지기의 활력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의 이 견해는 물질세계의 운동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리해하지 못하고 물화론적으로 해석하는 요소를 내포하고있으나 사물의 운동의 원인이 사물밖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물자체내에 있는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라고 말할수 있다.

한울의 운동에 관한 신인철학의 견해에서 새로운것은 진화설이다.

신인철학은 진화설을 진리로 확신하고 우주세계의 다양한 사물현상의 발생발전을 진화설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진화론을 진리로 인정하였으며 량적한울이 그 부분을 이루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진 각이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온데 대하여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개체가 생기기 이전에 사회(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가 먼저 선존적으로 있다는것은 누구든지 시인하지 못할것인즉 수운주의는 이 선존적사회를 칭하여 <한울>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주는 외형으로 볼 때는 천지만물의 다양한 특징을 가졌다 할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전우주에 꼭 들어찬 하나의 근원적인 세력(지기)이 있어 한울만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흘러내려 백천의 헤아릴수 없는 많은 세월이 지나 오늘과 같은 조직이 있는 우주를 보게 되었다 할수 있다. 이것이 곧 수운주의의 진화설이다.》(《신인철학》 13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 수운주의진화설의 본질과 특징은 부분과 전체(개체와 전체)를 명백히 해명하고 전체로부터 개체가 발생한것으로 본데 있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다양한 천지만물이 발생하기 전에는 한울, 우주만이 존재하고 한울,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물현상이 발생한것으로 본것만큼 개체로부터 전체가 발생한것이 아니라 전체 즉 한울로부터 필연적으로 개체적인 사물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신인철학》 11페이지)

수운주의진화설은 운동의 상승발전문제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신인철학에서는 《만물은 실지 자기 생명의 본원적활동력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분할 발달하는 중에는 진화의 로정에 떨어져 정지된것도 있을것이며 정지되어 죽은 물건으로 된것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현상이요, 한울전체로의 생명으로 보면 일초일분도 휴식치 아니하고 전체 보편적보다 차츰차츰 진화발전하며 나가는 무한의 로정에 있다.》(《신인철학》 38페이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주세계의 운동변화가 끊임없이 상승발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것이다.

신인철학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인 지기의 생명력이 낮은데로부터 높은데로, 하등에서 고등으로, 덜 발전된것으로부터 발전된것으로, 덜 조직된것으로부터 조직된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물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고급한 발전단계에서 인간의 의식이 생겨났다고 인정하였다.

한울, 우주의 운동에 관한 신인철학의 견해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무위이화이다. 신인철학에서 무위이화는 운동의 원인, 성격, 법칙, 방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주되는 범주이다.

신인철학은 무위이화가 하늘의 절대본체의 법칙이며 통화작용(한울본체에 동일적으로 작용하는것)과 분화작용(개개의 사물현상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것)으로 나타나고 항구적항상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법칙이라고 인정하였다.

무위이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면 한울본체(우주본체)와 그의 각이한 표현인 다양한 사물이 자기 원인과 자기 법칙, 질서에 따라 저절로 끊임없이 상승발전하는 창조적 진화운동을 한다는것이다.

신인철학의 지기일원론은 동학의 지기일원론과 그 원리적내용전개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되었다. 동학의 지기일원론이 신과 신비적인 한울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자연에 해소시킨 범신론이라면 신인철학의 지기일원론은 한울을 신비화한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한울, 우주의 본체, 시공간적현상으로 인정하였다.

신인철학은 한울을 신비화하고 신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불철저성을 가지고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신관념에서 벗어나 한울을 자연적인것으로 이해하는데로 나갔다.

신인철학이 우주관에서 동학의 지기일원론에 내포되어있던 신비주의적요소를 눈에 띄게 극복한것은 그 진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신인철학은 우주에 대한 견해를 근대철학의 높이에서 풍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하였으나 세계의 일반적특징문제를 당시까지의 자연과학이 도달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전개함으로써 근대철학의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게 하였다.

조선근대철학사상들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를 제기하지 못하였지만 당시의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사상들을 내놓았다.

실마리어 동학, 신인철학